

### 동강대, 10년간 헌혈 캠페인 사랑나눔 실천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사랑 나눔 실천의 '헌혈 캠페인'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 동강대 간호학과 RCY동아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교내 곳곳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헌혈의 의미를 적극 홍보했다.

도 '신입생+재학생', '신입생+신입생'이 2인

1조가 돼 헌혈할 경우 '너랑 나랑 헌혈하고 치킨먹자'라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 소중한 생명 지킴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차례 헌혈 행사를 진행해온 동강대는 지난해 3월 광주전남혈액원과 협약을 맺는 등 따뜻한 이웃 사랑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하얀나비 청년봉사단, 광주 사랑의열매와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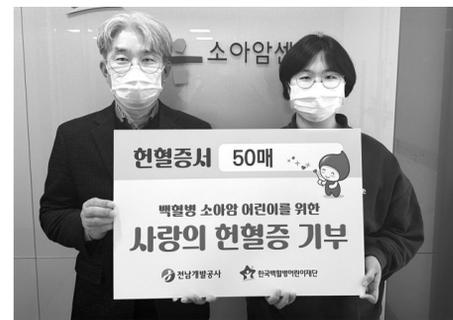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이하 광주 사랑의열매)가 최근 하얀나비 청년봉사단과 지역사회 나눔활동 협약을 맺었다. (사진) 두 기관은 상호협력력을 통해 광주시 취약계층 사회복지증진 및 시민참여 나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얀나비 청년봉사단은 자선모금행사, 나눔축

제 등을 전개해 기부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모금된 자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주거 공간 개선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하얀나비 김근우 대표이사는 "기부를 통해 변화되는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이 나눔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 전남개발공사, 광주나눔소아암센터에 소아암 환자 위한 헌혈증 50매 전달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는 최근 공사 주최 헌혈 동참 캠페인 행사를 통해 기부 받은 헌혈증 50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광주나눔소아암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헌혈증은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수혈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아암 환아들에게 지원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유 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신대 토목환경공학과, 총동문회장학금 수여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총동문회(회장 이정현)가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사진) 지난 12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열린 총동문회장학금 수여식에서 김연수, 나지후, 박신, 백준근, 오현성 학생이 4년 전액 장학

금, 김기민, 임성준 학생이 2년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동문회는 지난 2020년부터 입학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 학업에 매진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송원대, GTX-A노선 운영과 인재양성 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와 GTX-A노선 운영(주) (사장 조진환)은 지난 11일 송원대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철도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원대 최수태 총장을 비롯한 철도대학 주요 관계자들과 GTX-

A노선 운영(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철도 인재양성과 관련된 교육 및 실습 지원 ▲철도 운영 관련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실무 중심의 취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김창진 광주대 국방학과 교수 '미래전을 만드는 드론' 출간



광주대학교 김창진(사진) 국방학과 교수가 최근 '미래전을 만드는 드론'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에서는 ▲병력을 기반으로 한 드론의 정의 ▲드론의 기계적 구조 ▲공중공간과 전투의 관계 등 공간의 중요성 ▲결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제2차 이라크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현대전의 특징 ▲위리어드론의 전술적 운용 총 5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 교수의 저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체계로 떠오른 드론의 전술적 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술 교리의 발전에 이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09	30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킴지 TV생물도감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릭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개리와 친구들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			00 뉴스브리핑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브레드와 월드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시간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미(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1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025 메이저리그 개막전 <LAD저스:시카고컵스>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이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00 스모킹 건	20 PD수첩	20 신들린 연애 2
11	30 영성앨범 신(재)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세차JANG(재)	20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MBC 뉴스 25	20 도시락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메탈카드봇S 경찰의 귀환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물	19:20 고향민국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베트남 육항만리 -고기 따라 하장오로(路)>
07:30 슈퍼월스 슈퍼콤보	14:40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내가 있어 봄이다 2부 두 번째 신혼일기>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5:10 고향민국	21:55 건축탐구 - 집
08:00 당동당 유치원	15:40 마사와 곰	22:50 EBS 다큐프라임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55 블록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35 허풍선이 미술쇼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4:00 클래스 e(재)
08:50 하프와 친구들	16:30 페파 피그	
09:20 자이언트 팽TV	16:40 마사와 곰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6:55 슈퍼월스 슈퍼콤보(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8일(음 2월 19일 丙戌)

<p>36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고 싶다면 반드시 정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8년생 원칙만 고집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 60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72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84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96년생 희구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4, 81</p>	<p>42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54년생 예견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6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78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0년생 여태까지 공물여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02년생 사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79</p>
<p>37년생 주장이나 의견을 속 시원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9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61년생 진행되고 있는 현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73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85년생 전과 똑 같다. 97년생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라. 행운의 숫자 : 02, 39</p>	<p>43년생 망심하다가 급락을 면치 못 할 것이다. 55년생 전환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67년생 기운이 있어도 더러워 대치하다 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79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1년생 쉽게 잠깐한다면 자신을 얽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03년생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5, 66</p>
<p>38년생 아주 희박했던 가능성이 차차 농후해지는 위상에 놓인다. 50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62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74년생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86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롭다. 98년생 관련 시킨다면 문제점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7, 68</p>	<p>44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56년생 살피고 물어 보는 것이 낫다. 68년생 결코 단순한 사상이 아니니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80년생 치밀한 대처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92년생 내버려 두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4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16, 94</p>
<p>39년생 지금은 내색할 때가 아니로다. 51년생 불편을 감수하고 싶더라도 길사가 펼쳐지리라. 63년생 평생사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75년생 기대치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스러워하는 국량이다. 87년생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나리다. 99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2, 87</p>	<p>45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리라. 57년생 식견이 풍부하여 이과 함께 하자. 69년생 기존의 형상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81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93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05년생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67</p>
<p>40년생 자연스러운 속에서 북이 깃드는 법이다. 52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닥이 잡히겠다. 64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76년생 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88년생 중요한 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00년생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6, 82</p>	<p>46년생 잘 표시해 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발생한다. 70년생 명에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82년생 추진하는 방향과 현상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라. 94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만이 난무하고 있다. 06년생 행하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90</p>
<p>41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라. 53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이 중단될 수 있다. 65년생 운기가 험하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77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가능성을 동반하게 된다. 89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01년생 개털에 벼룩 기듯 하겠다. 행운의 숫자 : 39, 93</p>	<p>47년생 막연하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59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안 되겠다. 71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83년생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겠다. 95년생 개개인의 미진한 힘이라 할지라도 합쳐진다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니 협업하라. 07년생 보탬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85</p>